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풀 세미나. 2019.12.20. KIEP 서울회의실

한·몽 인적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G. Munkhnasan[1)]

1. 서론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를 맺었으며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내년이면 한·몽 수교 30주년이며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격상하려고 양국 정부 간 논의하고 있다. 경제협력 범위에서는 한·몽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공동 연구를 마친 상태이며 한국 Exim 은행의 투자로 총 6,000세대의 “Solongo-1”,“Solongo-2” 아파트 단지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기술이 발전한 한국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몽골과 한국 간 협력에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인적 교류이며 최근 양국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2018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의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한 인적교류현황을 연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약30년을 걸쳐 형성되고 성장해온 다면적인 인적 교류가 있다. 이러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연구하려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현재 양국 실질 인적 교류의 중요한 요소인 관광객, 유학생, 장기 체류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양국 인적교류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 방법은 양국 관광객, 유학생, 체류자 관련 문헌조사, 이들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 의료관광중개업체, 법률사무소, 다문화센터, 유학원 담당자, 투자자 및 전문가 등 17명(한국 9, 몽골 8)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직접 인터뷰, 전화 인터뷰, 전자 우편을 통한 인터뷰로 실시하였다(부록1 참고).

이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양국 관광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양국에 공부하는 유학생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양국 체류자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5장에서 결론과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관광 교류 현황과 협력 방안

한국과 몽골 국민 간 상호 방문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성수기에는 대한항공 주 11회, 몽골항공 주 11회, 에어부산 주 2회로, 아시아나 주 3회, 총 주당 27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몽골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5년 26.7%, 2016년 1.9%, 2017년 30.6%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11만8783명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보면 2016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6년 21.5%, 2017년 28.8%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8만6013명 몽골을 방문했으며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표1 참고).

몽골 관광객: 몽골인 아웃바운드 주요 목적지 3위에 한국이 있으며 방한 몽골인들의 주요 목적은 취업, 의료관광, 순수관광이다. 한국으로 여행한 이유로는 ‘자연 풍경 감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쇼핑’, ‘역사·문화유적 탐방’, ‘치료 및

1)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몽골어 학과
munnasa@hanmail.net

미용 서비스' 순이었다. 몽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짧은 비행시간과 쇼핑, 선진문물 등의 이유로 선호되고 있으나, 저렴하지 않은 비용, 비자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2].

표1. 양국 방문자

단위: 명, %

	한국 방문 몽골인	증가율	몽골 방문 한국인	증가율
2014	64096	n/a	47084	n/a
2015	81201	26.7	48979	4.0
2016	82780	1.9	59514	21.5
2017	108139	30.6	76637	28.8
2018	118783	9.8	86013	12.2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 월보(2018.12), 몽골 통계연보 (2018)에서 필자 작성

방한 입국자 몽골인은 한국 총 외래객의 0.5%에 불과하지만 몽골 관광객 수는 지속 증가하고 한국 여행에 지출하는 비용은 타 국적 관광객 중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방한 몽골 관광객은 2014년부터 5년간 연평균 16.9%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만8천783명을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몽골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천70달러(246만원)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타 국적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2위인 중국(1천887달러·224만원)과 3위인 중동(1천777달러·211만원) 관광객보다도 200~300달러가 많았다. 아울러 개별 여행객의 쇼핑비도 평균 677달러로, 1위인 중국(1천263달러·150만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몽골의 3천 달러(357만원) 이상 소비하는 고지출자 비율이 전체 방한객의 24%로, 관광공사가 집계한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만큼 부유층이 한국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며 몽골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전체 평균인 7.2일의 3배에 가까운 20일이었다. 체류 기간이 길다보니 지출 경비가 이에 비례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3]. 한국관광공사에서 2017년 몽골인 해외여행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한 여행 장애 요인은 1위 비자 발급 절차가 불편하다, 2위 의사소통이 불편하다, 3위 물가가 높다, 4위 출입국 절차가 불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한 몽골 관광객의 주요 목적은 1위가 취업이며,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관광객은 순관광객보다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기 취업 비자 C-4가 있으며 정보기술, 전자거래 등 기업정보화, E-비즈니스, 생물산업,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나노기술, 디지털전자,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한 광고, 패션모델, 연구나 강연, 강의, 기술지도 등의 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그러나 몽골 방문객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C-3 비자를 이용해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방한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몽골 국민들의 한국 비자 발급 절차를 원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

2) 한국 관광 공사, 몽골 관광시장 조사 2017.
3) "이젠 몽골 관광객이 '큰손'…의료관광·쇼핑에 지갑 연다" 2019.05.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146900030

치를 취하고 한국 비자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몽골안 비자 현황을 보면 몽골 국민 비자 면제국가는 총 20개국이며 한국 방문 시 사증 발급이 필요하다. 한·몽 사증간소화협정이 2012년 5월 체결되었고[4] 몽골인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조치에 상응하여, 2017년 몽골 측은 한국 국민 빈번출입국자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은 고용허가제 몽골인 쿼터 소진 방안 협의를 하고 양측은 고용허가제 몽골인 허용 쿼터를 소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몽골 근로자의 국내 불법체류율을 낮추고, 고용주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전후 한국어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몇 년에 걸친 경제위기로 몽골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한국 원의 몽골 투그릭[5]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에 방문하여 일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졌다. 몽골인들은 단기 취업 비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여행 등의 목적으로 단기 방문 비자 c-3를 발급받고, 이 비자를 이용하고 60일-90일 내에 일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몽골 국민의 방한 비자 신청자가 증가하여 단기 비자신청자가 매일 평균 약 700~800명 이상 접수되었다[6].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기위해 일부 비자 신청자들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전산, 납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학생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아울러 방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몽골국민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매월 평균 5백 명 이상 증가하여[7] 비자신청 시 정밀심사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여타 선량한 신청자들의 비자신청까지 심사 및 발급이 장기간 적체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비자발급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비자 신청일부터 비자심사까지 포함하여 약 50일(업무일 기준, 10주) 이상 걸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비자 발급 과정을 복잡하고 오래 걸리도록 만들어 몽골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사증접수 대행기관 8개와 협력하고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자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다. 대행기관은 하루 비자 신청자 수를 정해 두고 있으며 비자 신청자들은 전날 밤에 줄을 서거나 돈을 내고 번호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안타깝게도 주몽골 한국대사관의 이미지와 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첫째는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제도를 몽골 정부에서 개선해야 한다. 조작된 서류를 발급해 준 은행, 기업, 공공 기관 등의 관련자에게 엄격한 벌금과 법적 조치를 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몽골의 사회보험공사에서 서류조작에 가담한 일부 사람들을 체포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렸지만 이 문제

---

4) 2012.10월 발효됨

5) 몽골 화폐 tugrug(MNT)

6)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2019년 02월 28일. “대한민국 사증심사 기간 지연 알림”의 내용에서 http://overseas.mofa.go.kr/mn-ko/brd/m_370/view.do?seq=13236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7) 위와 같음

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둘째는 한국대사관이 300만 명밖에 안 되는 몽골 인구 중에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거나 긴급한 업무로 인한 신청자들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 비자 발급 관련 문제로 인해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교 등 일부 기관이 협력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단기 방문 비자를 이용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 한국은 노동자가 부족해서 외국인들은 합법 또는 불법 수단으로 단기간 수익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은 이런 사람들을 지속 고용하고 있다. 한국에 단기 노동 일자리가 없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수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위 상황을 보면 한국에 단기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있으며 몽골은 이 수요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몽골 노동자들이 단기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양국 노동기관이 협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몽골의 의료관광객: 방한 몽골 관광객 중에서 몽골 의료관광객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기관 서비스를 받으러 한국을 방문한다. 몽골 의류관광객의 방한 체류기간은 평균 35.6일, 체류기간 중 의료서비스 이용기간은 평균 13.9일로 의료서비스 이용기간 대비 두 배 이상 길게 체류하고 있다. 몽골 의료관광객의 경우 한국 체류 중 국내관광 경험은 25.5%에 불과하고, 의료 관광으로 방문 시 가장 선호하는 관광 상품은 쇼핑이었으며, 자연 및 풍경 감상, 힐링 센터, 템플스테이 등의 휴양과 휴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몽골 의료관광객의 경우 비자를 거의 한국에서 발급받고 있으며 인증 받은 의료관광 회사를 통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 의료기관의 인프라 차이가 커 초기 진단이 차이가 있거나, 진단할 의료 기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몽골 환자들이 한국 의료기관 수준으로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 초기 진단을 제대로 하고 한국에 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몽골에서 한국으로 보낼 환자를 담당하는 몽골 의사들을 육성하고 연구, 연수, 교류 등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몽골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일부 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몽골 의료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서비스 질 향상,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한 수속, 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귀국 후 상담 제공 등이 있다. 또한 몽골인들은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서 어렵겠지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건강보험 제도를 설립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 관광객: 최근 SNS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 여행에 대해 접하고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더불어 항공편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이러한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자는 30일 무비자 혜택에 해당되고, 일반 여권 소지자는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 몽골 비자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는 하나만 있는[9] 몽골비자센터를 통해 비자를 받는다. 한국 관광객들, 사업가들,

8) 한국 관광 공사, 몽골 관광시장 조사 2017.

학술활동 참가자 등은 주로 여행 비자를 발급 받으며 비자 발급 과정은 어렵지 않다. 일반 비자는 4일, 급행 비자는 당일이나 1박 2일 정도 걸리며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몽골의 관광 성수기에 여행 비자 신청자가 많아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향후 몽골 비자 센터는 성수기에 직원 수를 늘리거나, 여행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자 신청자 서류를 따로 처리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몽골로 갈 때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에 방문하기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무비자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현재 몽골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가 있다[10]. 이러한 비자문제를 해결한다면 양국이 좀 더 원활하게 인적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학생 교류 현황과 협력 방안

몽골 유학생 현황과 문제: 2018년 기준 한국에서 몽골 학생 총 8,650명, 이 중 한국어 연수생 4,239명(51%), 유학생 4,411명(49%) 공부하고 있다(표2 참고). 유학생들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표2. 몽골 유학생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학생 수	비중
유학	(D-2)	4,411	51.0
한국어연수	(D-4-1)	4,239	49.0
외국어연수	(D-4-7)	0	0
총 계		8,650	100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 월보(2018.12)에서 필자 작성

한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정리하면 첫째: 몽골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 문제이다. 몽골 유학생들은 대부분은 한국에서 성공 그 이상을 기대한다. 몽골 유학생들의 목표는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학업적 성공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유학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고 한국 생활에 적응, 낮아지는 자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 한국어 장벽 외에 영어 장벽, 희망이 없는 유학 생활이라는 인식 등은 중도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11]. 몽골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학기 중에서 그만두거나 대학원생들이 학위 논문을 마치지 않고 수료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둘째: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이다. 유학생들은 전액 장학생, 반액 장학생, 자비 유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액 장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전액 장학금을 받기에 생활비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액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들

9) 부산에도 몽골비자센터가 있다
10) 몽골로 무비자 입국하는 국가: 미국 90일, 영국 30일, 독일 30일, 캐나다 30일, 일본 30일
11) 양징르함, 김사훈. 2019. 재한 몽골 유학생의 중도 탈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은 성적에 따라 학비의 30%-70%를 장학금으로 받고 남는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비로 공부하는 유학생, 언어연수생들이 많다. 유학생과 언어연수생들은 대부분 몽골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 학생들은 입국 6개월 후에 가족과(남편이나 부인, 아이들) 같이 살 수 있으며 가정 생계 문제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에 외국인이라서 국가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 월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은 통역·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일시적 연구활동, 외국어 회화지도,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을 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며,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학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원칙은 유학생에만 해당하고 유학생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연과학 전공으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참여할 프로젝트가 있지만 사회과학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조건에 맞는 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12] 또한 아르바이트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비자 연장 관련 문제이다.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제도를 보면 융통성있는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학교들을 불법 유학생 기준으로 구별하며 대학교의 수준, 유학생 성적, 결석 등을 평가하여 비자연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교나 성적과 결석 문제가 있는 유학생들은 2천만 원을 몽골에서 입금하거나 잔고증명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 원을 불법 수단으로 만들고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2천만 원을 마련해 주고 하루에 1%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한국과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대로 2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고 이런 경우 많은 돈을 쓰고 왔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

넷째, 한국 유학 희망자의 비자 관련 문제이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나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석사 과정을 희망자는 25세 이상이면 비자 발급이 어렵다. 그런데 몽골에서 석사과정 희망자는 25세 이상인 경우가 많다.

또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 비자가 어렵다. 예컨대, 몽골 1천 마리(이상) 가축 소유 목축업자, 가게나 사업을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사업가 등은 부동산이 있어도

1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자 발급이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보다 월급 수준이 작은 공무원, 아니면 사회보험에 가입된 부모가 있으며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 입학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 일부 학교들은 입학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입학증명서를 받아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이 길어서 학기가 시작한 다음에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새 학기가 시작한지 10일 이내면 학비의 80%, 3주 이내면 70% 정도를 환불한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늦어서 한국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한지 3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골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서류를 준비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환차손으로 인한 보증금 부족, 정해진 기간 내 비자 발급 어려움, 거부 이유의 불명확함[13]으로 인해 유학생 부모와 유학학원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향후 몽골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줄이고 학업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할 몽골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으로 유학할 조건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지방대학교, 수준이 낮은 대학교들 등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몽골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또한 모국에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며 유학할 여유가 있는 몽골과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그 학교와 그 학생의 자유, 인권 관련 문제이라서 간섭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학생들의 질을 향상하고 중도 탈락을 줄이는데 양국 대학교 간 공동 교육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학부는 2+2, 3+1, 석·박사는 1+1, 1+2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제도는 잘 구축되었지만, 아르바이트의 현실적 조건은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유학생들이 6개월 이상 안정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현실 조건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계약 한다는 원칙을 실행할 수 있게 한국 고용자들의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자와 관련해서 몽골에서 한국 단기 방문 비자 신청자는 문제가 많고,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학 비자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를 7-10일 이내로 발급하거나 급행 비자를 발급해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유학비자 신청자들의 서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은 청년들을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H-1 관광 취업 비자)를 약25개 국가에 발급하고 있으나 몽골은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양국은 몽골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협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한다.

한국 유학생 현황과 문제[14]: 몽골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많지는 않다. 한국의 몽골학 전공 학생들이 몽골어 연수, 교환 학생, 인턴 등 목적으로 몽골에서 공부

13) 비자 거부 이유는 12개 있으며 방문 목적 정확하지 않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 생활 관련 문제는 주 몽골 한국 체류자의 문제와 같은 것들 있어서 4장에서 정리했음.

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운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인으로서 현지 공공기관 및 유학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몽골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유학생들이 몽골에 적응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몽골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인 사비를 들여 개인과외 또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1년을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최근 한국정보센터 및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카페나 모임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인이 없어 몽골에서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셋째: 한국 유학생들의 거주지 임대 관련 문제다. 교환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개인 임대 숙소를 이용한다. 개인 임대 숙소를 이용할 경우에 한국처럼 부동산 정보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거나 언어 소통 장애로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건물 주인과 갈등이 종종 생기고 이런 경우에 어디에서, 누구에서 도움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몽골에 주몽골대한청년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어학연수, 인턴, 취직, 사업, 여행, 해외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안전한 해외생활과, 한·몽 청년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협회에서는 매주 다른 단체들과 함께 청년 모임을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현지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를 소개해주며 언어 교류와 서로 도움을 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있다. 주몽골대한청년협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법률 회사 등의 협력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혼자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을 위한 몽골 친구 네트워크와 모임을 조직하고 교류하며 시장 방문, 동사무소 서류 발급, 언어·문화 배우기 등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몽골대학교 측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 도시 여행, 문화 체험, 기업 방문, 몽골 산업 대표 공장 견학 등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주몽골 한국대사관, 대학교, 몽골정부와 비정부 단체가 협력하고 학생 교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한·몽 인적 교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양국 유학생들의 문제점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장기 체류자 현황과 협력 방안

주 한국 몽골 체류자 현황과 문제.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4만 9638명의 몽골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총 외국인 중 몽골국민들은 2%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몽골 국민의 수가 2015년 24.3%, 2016년 15.3%, 2017년 29.9% 급속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 1.2%, 2019년에 7.2% 증가했다(표 3 참고).

표3. 한국에서 체류하는 몽골국민들

단위: 명, %

	총 외국인	몽골인	비중	증가율
2014	1797618	24,561	1.4	
2015	1899519	30,527	1.6	24.3
2016	2049441	35,206	1.7	15.3
2017	2180498	45,744	2.1	29.9
2018	2367607	46,286	2.0	1.2
2019.10	2,481,565	49,638	2.0	7.2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 월보(2018.12월, 2019.10월)에서 필자 작성

2019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 4만 9638명의 몽골국민 중 41.3%(25460명)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48.7%(24178명)는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그 중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가 46.5%(23106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전문취업 11.9%(5905명), 유학 11.7%(5789), 방문동거 6.4%(3179명), 일반연수 6.2%(3054명), 결혼이민 비자로 3.7%(1844명)이 체류하고 있다(표4 참고).

표4. 한국에서 체류하는 몽골국민들, 비자 별

단위: 명, %

	총	남	여	비중
소계	49,638	23,884	25,754	
사증면제(B-1)	293	167	126	0.6
관광통과(B-2)	720	358	362	1.5
일시취재(C-1)	8	5	3	0.0
단기방문(C-3)	23106	10,932	12,174	46.5
단기취업(C-4)	51	33	18	0.1
문화예술(D-1)	11	8	3	0.0
구직(D-10)	833	201	632	1.7
유학(D-2)	5789	1,903	3,886	11.7
기술연수(D-3)	26	22	4	0.1
일반연수(D-4)	3054	1,280	1,774	6.2
종교(D-6)	27	21	6	0.1
주재(D-7)	18	8	10	0.0
기업투자(D-8)	58	34	24	0.1
무역경영(D-9)	108	35	73	0.2
교수(E-1)	7	6	1	0.0
연구(E-3)	28	11	17	0.1
예술흥행(E-6)	117	84	33	0.2
특정활동(E-7)	215	122	93	0.4
비전문취업(E-9)	5905	5,107	798	11.9
방문동거(F-1)	1212	354	858	2.4
거주(F-2)	976	402	574	2.0

동반(F-3)	3179	1,884	1,295	6.4
영주(F-5)	688	74	614	1.4
결혼이민(F-6)	1844	149	1,695	3.7
기타(G-1)	851	423	428	1.7
기타	807	428	379	1.6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 월보(2019.10)에서 필자 작성

몽골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언어 장벽, 비자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병원, 한국인과 결혼 및 이혼, 가족 초청, 한국 국적 취득, 취업 비자 발급, 이직문제 등이다. 한국에서 산업 연수로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교육을 받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겨우 인사말을 배우고 오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고용자 측과 이해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간 산업연수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 및 부모님을 초청해서 한국을 구경 시키거나, 매년 모국으로 갈 수는 없다. 오랫동안 따로 살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에 입국한 몽골인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 관련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몽골인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17,514명이 되었다. 몽골은 불법체류자의 수로 태국,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4위에 있으며 2016년 이후로 약 3,742명 정도가 강제추방 되었다(표5 참고).

표5. 한국에서 체류하는 몽골의 불법 체류자

단위: 명, %

	총 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강제추방 불법체류자
2016	35206	10146	28.8	1013
2017	45744	12719	27.8	1029
2018	46286	15919	34.4	1191
2019.6	47483	17514	36.9	509

출처: 정형기“불법체류 외국인 37만명... 송기헌 “태국인, 14만명 최다”. 2019.9.30.에서 필자 작성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5

사증면제, 단기 방문 비자, 유학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고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몽골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난동을 일으키거나 취중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안타깝게 몽골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예컨대, 2016년에는 몽골 국적 1,758명이 범죄로 등록되었고, 종목 별로 보면 살인, 살인미수 7건, 강도 5건, 성추행 42건, 절도 279건, 폭행 431건, 지적 재산 관련 77건, 도박 9건, 교통사고 526건, 기타 382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범죄 발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동 때문이 아닌 한국 법에 대한 지식 부족, 한국 언어·문화 대한 지식의 부족이었다. 예컨대, 언어 장벽 때문에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몰라서 서로 기분이 상했다거나 외국인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하였

다[15]. 이런 범죄는 몽골에서 온 노동자들의 기본 교육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에서 노동자 부족이 지속될 예정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외시하면 사회적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2020년 6월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기간이며 불법 노동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 벌금이 없으며, 다시 한국에 입국 시 c-3 비자를 준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좋은 조건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몽골과 한국 관련 기관들은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 3급 이상, 아니면 한국 생활 맞춤 교육, 한국 문화 교육, 한국 법률 교육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몽골 노동자들을 1년에 한번 본인 비용으로 모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연차 지급, 우수 노동자들을 위한 가족 단기 초청 등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몽골인 다문화가족 현황과 문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15만 9206 가구의 다문화 가족이 있다. 그 중 몽골인 다문화 가족 2434(1.5%)가구가 있으며 몽골인 남편 가족 147, 몽골인 부인 가족 2291가구가 있다[16]. 몽골인 다문화 가족 자녀는 2017년 기준으로 3132명이[17] 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217여개의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초·중급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와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한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상담; 결혼 이민자 취업과 연계한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 등이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향후에 해당 국가와 인적 교류,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서 최근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몽골 다문화 가족들도 이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개인적 특성(나이, 모국, 계층, 한국어 능력, 체류기간, 취업경험)과 가족적 특성(결혼지위, 자녀유무 및 연령, 가족형태 등)의 다양성에 비해 이들의 취업형태는 서비스직, 판매직, 모국어 관련 업종 등으로 제한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18]. 몽골 결혼이주여성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고, 한국어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혼 초기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많지만 한국에서 생활이 적응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몽골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남편의 나이가 여성보다 많아서 생애주기 관련 문제도 있다. 남편이 질병 및 사망한 경우에는 이들 여성들에게 아이를 책임지고 가정생계를 이어갈 능력이 필

15) Otgonbayr,S. 2018. 한국 거주 몽골인 현황, 애로사항, 문제점. 주한국몽골대사관 세미나 자료.
16) 여성가족부, 2018.12.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
17) 다문화가족 지원 포탈 다누리. 2019. 다문화가족 통계.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refGroup=4
18) 강희영 외. 2016.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요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 생활에 적응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와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들 여성들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취업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5만 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는 정책을 고려해보야 될 것 같다.

재몽골 한국체류자 현황과 문제: 현재 몽골에서 약 3,500여명의 한국 국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기업인, 선교사, 교육 및 의료인, 대사관 및 여러 봉사 단체의 봉사 요원,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교민들이 울란바토르 시내를 중심으로 모여 생활하고 있다. 몽골에서 사는 한국인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의 신속한 서비스, 중앙난방 제도 등 좋은 점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애로 사항이 있다.

생활 관련 문제는 우선 인프라 관련 문제다. 자가용이 없을 경우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택시는 개인 자동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안감이 있다. 특히 지방에 출장 가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통신 네트워크도 되지 않는다.

둘째는, 환경 문제가 있다. 올란바타르 시의 겨울 대기 오염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 또한 서비스 환경이 후진되어 있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문제는 몽골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셋째, 문화 차이이다. 양국에서 친구이라는 개념, 나이 차이, 상사와 직원의 개념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몽골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편이다.

사업 관련 문제는 먼저 언어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 통역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다. 본인들의 몽골어를 몰라서 통역사가 제대로 전달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통역사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둘째, 몽골 업체들이 행정 문제. 몽골 업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기간 내에 요청한 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몽골 업체는 계약서를 읽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나중에 계약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읽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몽골 직원들의 어려 이유로 연차를 내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양국 국가 기관 제도 차이다. 몽골은 전산시스템이 덜 발달하여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손으로 적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업체 측에다 몽골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정산 시스템을 거친 서류를 작성하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긴다. 몽골 국가기관의 서비스가 너무 후진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 대행 할 직원이 없으며 사전 복합 민원 서비스 등이 없는 것은 불편하다. 또한 몽골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향후에 생활 관련 문제에서 인프라와 환경 관련 문제는 적응할 수밖에 없으나 겨울철 대기오염 대응 방법을 신경써야 한다.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몽골에서 체류하는 경우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재몽골 한국인들은 같이 일하는 몽골인들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 관련 문제에서 연차 문제와 야근의 부재는 몽골 업체의 문화이며 재몽골 한국투자 회사는 몽골의 법을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몽골 업체들은 이를 변경해야 하고 국제 수준에 맞추어 일을 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이 몽골에서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인들도 인정할 수 있게끔 영수증, 인보이스 등 각종 정산서류를 발행해야한다. 몽골 정부에서 몽골 국가 기관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안

최근 양국 관광교류가 활발해지고 20만 명이 상호 방문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향후 국민들의 교류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관광객, 몽골 의료관광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몽골 취업을 희망하는 단기 방문자들 관련 문제는 우려되는 점이다. 유학생 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양국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몽골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죄 문제가 우려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 비자발급 과정을 개선할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비자 관련 문제는 양국 인적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이미지 하락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비자 발급 과정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는 서류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양국 정부는 몽골의 무비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하며, 몽골 비자 발급 과정의 간소화, 한·몽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한·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인적 교류가 더 효율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몽골 유학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국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학·석·박 과정의 공동 교육(1+3, 2+2, 1+1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국의 교육 분야, 특히 대학교들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한국의 교육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몽골의 경우에는 양국의 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하며 혁신 기술, 산업 기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협력, 예술·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할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몽골과 한국의 인적 교류 범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관광, 유학, 장기체류 분야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평가한 점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몽골과 한국 인적 교류의 발전, 인적 교류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부록 1.

인터뷰 참가자

직위	이름	인터뷰 방법
글로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범일	직접
다문화센터 직원	1 명(몽골)	전화
몽골 대학교 총장	1 명(몽골)	직접
여성가족부 자문	B.Bodigal	전화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직원	1 명(몽골)	전화
주몽골대한청년협회 회장	윤준호	이메일
주 몽골 한국 투자자	3 명(한국)	간접
주 몽골 한국 회사 매니저	2 명(한국)	간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몽골사무소 인턴	이동진	이메일
한맥 법률 사무소 전 통역가	S.Otgonbayar	이메일
한·몽 여행사 직원	1 면(몽골)	전화
Ubiq 의료관광 회사 대표이사	장해순	전화
Smart Edu 유학원 원장	M.Oyunbayar	전화
Barrister Castos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B.Batjargal	전화

참고문헌

[한국어자료]

강희영 외. 2016.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징르함 김사훈. 2009. 재한 몽골 유학생의 중도 탈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5, May (2019), pp. 219-226. ISSN: 2383-5281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2018. 출입국 외국인 정책 월보(2018.12)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2018. 출입국 외국인 정책 월보(2019.10)

한국 관광 공사. 2017. 몽골 관광시장 조사

Otgonbayr,S. 2018. 한국 거주 몽골인 현황, 애로사항, 문제점. 주한국몽골대사관 세미나 자료.

[몽골어 자료]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2018.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эмхэтгэл 2018[몽골국통계청. 2018, 몽골국 통계연보 2018]

[온라인 자료]

다문화가족 지원 포탈 다누리. 2019. 다문화가족 통계.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refGroup=4 [검색 일 2019.11.25]

여성가족부, 2018.12.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검색 일 2019.11.18]

“이젠 몽골 관광객이 '큰손'…의료관광·쇼핑에 지갑 연다” 2019.05.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146900030 [검색 일 2019.12.5]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2019년 02월 28일. “대한민국 사증심사 기간 지연 알림” http://overseas.mofa.go.kr/mn-ko/brd/m_370/view.do?seq=13236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 일 2019.12.15]

정형기“불법체류 외국인 37만명... 송기헌 “태국인, 14만명 최다”. 2019.9.30.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5 [검색 일 2019.12.01]